

에리두 창세기에 대한 연구

— 구약의 원역사와 비교를 중심으로 —

엄 원 식
〈구약학 · 교수〉

I. 서론

1. 연구의 목적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화에 표현된 역사의 탐구’이다. 새로운 의식의 혁명을 가져오지 못하면 결국은 공멸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지구촌 위기에서 소위 「에리두 창세기」를 구약의 창세기와 비교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전거를 찾고자 함이다.

¹ Thorkild Jacobsen, “The Eridu Genesi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0 (1981), 513~29(이하 *JBL*로 약칭함); Thorkild Jacobsen, “The Eridu Genesis,” *I Studied Inscription from Before the Flood*, by Richard S. Hess and David Toshio Tsumura (Winona Lake, Eisehbrauns, 1994), pp. 129~42; John H. Walton, *Ancient Israelite Literature in Its Cultural Context* (Grand Rapids :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9). p. 20 *Britanica World Encyclopaedia*, “Eridu genesis.”

2. 연구의 중요성

(1) 역사적 및 고고학적 중요성—1946~49년에 이라크의 고대 유적연구부의 F. Safa와 S. Lloyd가 발굴한 Eridu(에리두)는 Ur 남서쪽 15km 지점의 유프라테스 강 오른편 둔덕에 있었던 수메르의 제1왕조가 자리잡고 있었던 곳이다. 이 곳에서 발견된 14개의 제단과 사원들은 장기간에 걸쳐 건설된 역사 초기의 정교한 흙벽돌 건축물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며, 이곳의 최하 지층에서 발견된 갈대 초막의 자취들은 대홍수의 영웅이 살았던 당대의 상황을 반영해 준다. 아울러 이곳의 유적들은 고대인의 농경과 유목생활의 원초적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²

(2) 문학적 및 신학적 중요성—에리두 창세기의 전체적인 구조는 구약 창세기의 원역사(2~9장)의 구조와 유사하다. 첫째 칼럼은 세계와 인간창조를 통하여 인간이 유목과 농경생활을 하면서 자연을 순화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칼럼은 최초의 도시건설과 왕권의 확립을 통하여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그로 인한 소란과 폭력 및 국가 기구의 반인간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칼럼은 대홍수와 방주에 의한 구원을 보여주어 새 인류가 지녀야 할 새 시대의 가치관에 대한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은 구약 창세기의 본문을 이해하는데 많은 빛을 던져 주고 있다. Eridu 창세기와 구약 창세기의 구조상의 차이는 다만 히브리인의 원역사는 대홍수 이야기의 부록으로 인구의 집중과 끝없는 도시 문명의 건설이 신의 창조질서를 위협하여 심판을 불러왔다는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재

² S. Lloyd, A.M. Mustafa, and F. Safar, *Eridu* (Baghdad, 1981). J. C. Margueron, *Du nouvea concernant le palais d'Eridu ?* (Syria, 1983), 60 : 225~31.

확인 해놓은 것 정도이다.

(3) 경제적 및 문화인류학적 중요성—에리두 창세기는 인간의 삶에서 이동농경과 유목생활을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형태의 도시체제는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했다.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지 않고, 성(聖)과 속(俗)이 하나로, 노동이 곧 축제로서 구성된 인간의 삶은 초원에서 얻어지는 순응과 조화의 총화로 보았다.

3. 연구의 방법

에리두 창세기의 세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구약 창세기와 비교하면서 그 내용을 역사, 경제, 문화, 종교, 인류학적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에리두 창세기의 본문들은, (1) 첫째는 Nippur에서 나온 수메르어 본문인데 기원전 16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서 고바빌로니아 시대의 서판이다.³ (2) 둘째로는 Ur에서 나온 것으로서 수메르어 본문과 같다.⁴ (3) 셋째로는 Nineveh에 있는 Ashurbanipal의 도서관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아카드어 번역본이며, 기원전 600년경의 것이다.⁵ 이상의 3개의 본문들은 여러 부분이 파손되어 없어졌기 때문에 유사한 수메르-아카드 설화들로부터 보충하여 복원시킬 수 있다.

³ Arno Poebel, *University of Pennsylvania, the University Museum, Publications of the Babylonian Section* (Philadelphia, 1911~), V. no. 1, p. 411. IV. pp. 9~10(이하 PBS로 약칭함).

⁴ *Ur Excavation Texts* (London, 1928) VI. no. 61(이하 UET로 약칭함).

⁵ F. Geers, *The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Assyriological Studies* (Chicago, 1931). II. p. 59; W. G. Lambert, *Cuneiform Texts from Babylonian Texts in the British Museum* (London, 1896~). XLXI, pl. XXiii, no. 5.

II. 본문의 내용과 해설

1. 세상과 인간창조

Nippur 본문의 첫째 칼럼은 시작 부분에서 36개의 행들이 파손되어 없어졌으며 그 뒤에 Nintur 신의 독백이 따라오고 있다. Nintur 신은 창조 작업에서 주요 결정권을 행사하는 4개의 최고 신들 가운데 하나이다.⁶ 그 여신은 인간들이 들짐승을 길들여 가축으로 치면서 유랑하던 환경에서 불러내어 한 곳에 정착하여 도시를 건설하고 사원을 세우고 문명된 생활을 영위토록 했다. 이제 그 본문을 살펴보자.⁷

(1) 본문

(i, 1') [^dNin-tu-re ^{gis-tig}gištu]g im-gá-g[á]

Nintur이 주의를 환기시키기를 :

2') nam-lu-ux l-gu₁₀ HA-lam-ma-bi-a ga-ba-ni-[i]b-[si]

“나는 나의 인간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 생각해 보겠다.

그들은 모두 잃어버려졌음을”

3') ^dNin-tu-ra nig-dim-dim-dim-ma-gu₁₀ si-[ge Ki]-[bi]-[šé] ga-ba-ni-ib-gi₄-gi₄

Nintur는 결심했다. “피조물들이 자기들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겠다.

4') ukù ki-ùr-bi-ta ga-ba-ni-ib-gur-ru-ne

나는 백성을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 되돌아오게 하겠다.

5') uru-ki-me-a-bi hé-im-mi-in-du gissu-bi ni ga-ba-ab-dúb-bu

나는 그들로 하여금 도시들과 제의의 장소들(聖殿)을 세워 그것들의 그늘에서 편히 쉬고 싶었다.

⁶ Poebel, *PBS. N.* pp. 24~34 참고.

⁷ Jacobsen, “The Eridu Genesis,” *JBL*, 100, pp. 514~16. FN. 6. S. N. Kramer,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Supplementary Studies, I* (New Haven, ASOR, 1945), p. 29, note 67. p. 30 251~69행 참고.

- 6') *uru-me-a sig₄-bi ki-ku-ga he-im-mi-in-sub*
 그들로 제의의 도시들을 정결한 장소(淨土)에 벽들을 쌓게 하고
- 7') *ki-eš-bar (!?)-aki-kù-ga he-im-mi-ni-ib-ri*
 그들이 신탁을 얻기 위한 장소를 정도에 건설케 하였다.
- 8') *kù a nig-ne-te-na si-mi-ni-in-si-sá*
 그녀는 정결케 하는 지침을 주고, 성스런 진노를 나타내기 위해 부르짖는 방을 만들게 했다.
- 9') *ga rza me-mah šu mi-ni-ib-šu-du₇*
 온전한 헌신과 경건한 업무를,
- 10') *Ki-a im-ma-ab-đug₄ silim ga-mu-ni-in-ġar*
 그 지역을 위해 '그곳에 평화가 깃들라!'고 했다.
- 11') *An^d En-lil^d En-ki^d Nin-hur-sag-gá-ke₄*
 안, 엔릴, 엔키, 닌후르샤이
- 12') *Sag-gi₆-ga mu-un-dim-eš-a-ba*
 검은 머리 백성을 창조한 후에
- 13') *nig-gilim-ki-ta ki-ta mu-lu-lu*
 그들은 땅에서 작은 동물들이 나오게 하였고, 그 땅을 풍성하게 했다.
- 14') *maš-anše-nig-ur-lim mu-ed in-na me-te-a-aš bi-ib-gal*
 그곳에 알맞게 영양들, 당나귀들, 그리고 사막에는 네 발 가진 짐승들이 있게 했다.

(2) 해설

Eridu에서 기원전 3500년경에 세계 최초로 도시 문명이 발생하였다. Eridu의 신들은 인간들이 땅속에서 기어 나오는 뱀들이나 벌레들, 들판의 영양들이나 들나귀 같은 야생동물들, 사막의 낙타나 사자 같은 네발 가진 큰 짐승들과 더불어 서로 사귀며 길들이며, 화목하게 살아나감으로써 모든 생물들이 즐겁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탈출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쯤레가 나는 땅을 개간하여 채소와 곡식을 심고, 땅에 기는 곤충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을 다스리고 지키게 한 것과 같은 것이다(창 1 : 26~29, 3 : 17~19). 이것은 수렵과 채집에 의존하던 인간들이

채소와 곡식이 될 식물들과 열매맺는 과실나무들, 그리고 야생동물들을 기후와 토양이 다른 환경에 옮겨놓음으로써 인간이 최초로 자연과 더불어 물리적 교섭을 벌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사냥의 실패 가능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가축사육자가 되게 하였고, 호전적인 사냥꾼이 양치기 유목민으로 변하는 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았다. 온화하면서도 습도가 낮은 기후는 목초를 잘 자라게 하여 가축을 기르는데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였다. 강수량이 적은 반 건조지대는 목축에도 적합하지만 밀 경작에도 안성맞춤이었다.⁸ 밀농사와 목축은 문명의 여명기에서부터 인류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밀은 연작할 수가 없다. 연작할 경우 첫 해 수확량의 35~40%만 거두게 된다. 따라서 매년 새로운 경작지를 찾아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짧은 기간이나마 한 곳에 머무르면서 송아지와 염소와 양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은 인간에게 기쁨을 주었고 소와 나귀는 경작과 이동과 수송에 있어서 인간의 노동력을 크게 덜어주었다. 이러한 이동식 농경과 유목생활은 빵과 유류제품을 제공하였고 이것은 인간의 지체로 먹는 문제를 해결한 최초의 혁명이었다. 따라서 ‘작물과 가축의 순화(馴化)과정’(the domestication of plants and animals)은 인류가 이 땅에서 일으킨 최초의 혁명이었다.⁹ 사막문화권에서는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원거리 이동과 물물교환이 불가피하였다. 이리하여 자연스럽게 길이 발달하였고, 그 길 위에 도시가 세워졌으며 도시 내부에는 한층 잘 정비된 길을 닦았다. 지번(地番)이 모두

⁸ 피라미드가 처음 출현한 카이로 남쪽의 사카라 고분에서 밀을 재배하는 광경과 그 열매를 맷돌로 갈고 있는 광경을 벽화로 그려 놓았다.

⁹ J. M. Houston, “city,” in *The Zondervan Pictorial Encyclopedia of the Bible*, ed. by Merrill C. Tenney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5), 이하 ZPEB로 약칭함.

길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되었으니 도시는 길을 중심으로 하여 구축된 것이다. 도시는 방앗간(mill)이라는 제분공정을 통하여 고대의 산업화가 촉진되었다.

에리두 창세기에는 ‘인간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성전을 세워서 신들을 모시고 인간들과 수시로 교통하며 그 땅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랐다’(5'~8')고 했다. 원래 Eridu에서는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원의 역할이 착취적이거나 봉건적인 것이 아니었다. 도시의 통치권한은 통치자 루갈(Lugal)보다는 제사장 엔시(Ensi)가 갖고 있었다. 도시와 거기에 딸린 토지는 모두 신의 영지였고 신전은 신의 저택이었으며, 백성은 신의 들판에서 함께 일하면서 농사한 작물의 소득으로 생활하였다. 이리하여 사원은 아무도 굶주리지 않도록 책임을 지면서 전체 공동체에 일종의 사회보장을 제공하였다. 다시 말하면 사원이 도시공동체를 부양하였다. 그리하여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온전한 헌신과 경건한 봉사’로써 그 땅에 신의 평화가 깃들 수 있었다. 이러한 문화적 및 종교적 전통은 계속 지탱되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 세월이 흐르고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국가 체제가 굳어감과 더불어 초기의 농경과 유목민의 삶의 자세와 방식을 상실해 가기 시작하였다. 원초적인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의 변화는 인간 본연의 모습의 변화이며 인간의 자기상실이였다. 또한 이것은 Eridu 신들의 창조목적에 대한 위반이였다. 이리하여 Nintur 신은 자신의 창조행위에 대하여 후회하기 시작하게 되고, 잃어버린 인간들을 되찾기로 결심하였다(1'~3'). 이것은 마치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창 6:6~7)란 말씀과 같다.

인간을 창조한 출산의 여신 Nintur는 일명 Ninhursag(‘작은 언덕

의 여왕'이란 뜻)이라고도 불리워지는데 그녀는 인간들에 대하여 지극히 '어버이다운'(mutatis mutandis)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는 '인간들은 그들의 길을 잃어버렸다. 나의 인간들(피조물)을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 되돌아오게 하겠다'(4')고 하고 있는데, 발자국(kibsum)은 생에 대한 과거의 흔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족적' 또는 '오솔길'의 의미가 있다. 오늘의 인간들은 도시의 한복판 십자로 대로에 발(hameru)을 딛고 서 있으나 사실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족쇄(kursû)를 풀고 옛사람의 길로 되돌아가야만 한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너희는 [도시의]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렘 6 : 16)고 한 말씀 속에 나타나 있다. 이것은 본래의 고향을 상실한 인간들이 마침내 인간 삶의 본질과 의미 및 생의 기쁨마저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치 산천을 배회하며 살던 늑대가 우리에게 갇히면서 평안을 얻었으나 삶의 의미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야성과 본능만이 남게 되어 이전투구의 양상을 띄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Nintur 신은 인간을 본래의 자연 친화적인 위치로 되돌아오게 하겠다(4')는 것이다.

그러나 본문의 서론 부분이 1~36행이나 파손되었기 때문에 다른 신화들의 판에 박은 내용으로 보충하여 이해할 수밖에 없다.

Atrahasis 서사시에는 '신들이 땅의 생명줄인 수로를 뚫고 운하를 팠다(I : 19~24). 신들은 노역으로 너무 따분하고 고통스러웠다(I : 1~6). 그리하여 출산의 여신으로 하여금 인간을 창조케 하고 신들의 노역을 떠맡게 하였다'(I : 190~91)고 하였다.

Adapa 신화에는 Adam의 전형인 Adapa는 Ea 신으로부터 '지혜(ḥassûtu, igigallu, er)'를 부여받았으나 영원한 '생명(napištu, balātu)'을 부여받지는 못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죽어야 할 존재로 창조되었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 창조되지는 않았다. 인간은 '피조물들

(Anunnaki)'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능력있는 자로 자리잡아 갔다. 그는 Eridu를 위해 배를 저어 고기를 잡고, 빵을 굽고, 제단을 정돈하고, Ea 신이 휴식할 때(제7일째 되는 날)에는 Eridu의 성소에 참석하였다'(A : 1~18)고 하였다.

에리두 창세기의 Ur 본문은 많이 파손되어 잔존한 부분은 심히 빈약한데 그것은

‘... 그곳 사람들은 살이 쪼으며, 그때에는 뱀이 없었고 ... 사자가 없었고 ... 개를 몰어가는 늑대가 ... 사람들은 ... 두렵고 불행한 일이 없었다.’

고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Enki and Ninhursag 서사시의 내용과 같다. 그 맑고 깨끗한 Dilmun 동산에는 병도, 죽음도 없었다. 그때에는 아직 관개수로가 없었고, 씨뿌리는 쟁기가 없었으며, 밭고랑에는 곡식이 파종되지 않았다. 아직 가축떼의 신 Sumukan은 나타나지 않았고, 벌거벗은 인간들에게 의복을 만들어 줄 양모도 없었다. 거기에는 위험한 짐승들이 없었으니, 까마귀도, Ittid 새도 울지 않았고, 뱀도, 전갈도, 하이에나도, 표범도, 늑대도, 들개도 없었고, 과부도, 비둘기도 울지 않았다. 눈 병든 자도, 머리 아픈 자도, 노인도 없었고, 물도, 강도 없었다. 물의 신 Enki는 태양신 Utu에게 명하여 땅으로부터 물을 길러서 덮문 땅을 채웠다. 이렇게 하여 푸른 초장이 생기고 푸른 나무가 우거진 동산이 되었다. 이 동산에 Ninhursag은 여덟 그루의 과일나무를 심어 자라게 했다.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싶어하는 엔키의 속심을 두 얼굴을 가진 Isimud가 알아채고는 이 먹음직스런 8개의 실과를 따서 주자 엔키는 그것들을 먹은 후 그 결과로 그의 몸에 8개의 기관들에 병이 들고 말았다. Ninhursag으로부터 죽음의 저주를 들은 후 그의 오장육부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때에 여우가 나타나서 엔키를 치료하도록 설득하였다. 그의 도움으로

Ninhursag은 엔키의 장기를 주관하는 신들을 불러내어 엔키의 고장난 8개의 기관들(장부)을 고칠 수 있도록 8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하여 엔키는 치료를 받고 그의 생명은 완쾌하게 되었다. 엔키의 병든 기관들 가운데 하나가 갈비뼈이고 이 갈비뼈가 수메르어로 ‘티(ti)’이므로 닌후르삭은 ‘닌티(Ninti)’ 즉 ‘갈비뼈의 여인’이란 뜻이다.¹⁰ 이상의 내용은 창세기(2:4~3:24)의 내용과 유사하다. Enki and Ninhursag 서사시에는 인간 몸의 각 기관의 질병과 더불어 오이, 사과, 포도, 나무식물, 풀, 잡초, 아스파, 가시, 등초목, 계피 등의 식물의 재배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은 그 뿌리와 잎과 꽃과 열매가 그 맛에 따라 인간과 동물의 각종 질병들과 상처들을 치료해 주는 자연 약재가 되기도 한다. 이것은 농경생활의 기원과 질병치료를 위한 약초재배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자연은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효능까지 갖고 있어 인간과 동물은 이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깨달아 자연과 인간, 그리고 동물이 함께 공존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작물이 경작되어 수확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생명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들문 땅은 ‘산 자의 땅(the land of living)’이었다.

한편 인간창조의 신화인 Enki and Ninmah 서사시(1~42)와 바벨론의 창조서사시인 Enuma Elish 서사시에는 신들이 인간에게 노동할 의무를 부여하였다고 하고 있다.

에리두 창세기의 Ur 본문의 마지막 행은 아직도 들문 땅에는 인간을 지배할 인간 왕이 없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¹¹

¹⁰ R. K. Harrison. "Creation," in *ZPEB*.

¹¹ H. Radau, *Suberian Hymns and Prayers to God "Nin-ib" from the Temple Library of Nippur* (Philadelphia :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11), no. 2 obv. 12 참조; E. Chiera, *Sumerian Religious Texts* (Upland, PA. Crozer Theological Seminary, 1924), no. 25. obv. i. 3~6, 18~22행

(3) 인류의 첫 번째 혁명

구약 창세기의 창조기사는 에덴 동산이야기의 서론으로, 그리고 에덴 동산이야기는 노아 홍수기사의 서론으로 기술되어 있다. 창조기사와 에덴 동산이야기는 인간창조의 목적과 인간의 본분에 대하여 잘 밝혀주고 있다.

‘야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 아직 흙을 일구어 농사지를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창 2 : 4b~6).

‘…… 에덴 동산에 그를 머물게 하셨는데, 그것은 이 동산을 일구어 농사짓고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창 2 : 15).

‘너는 네 인생의 모든 날 동안 수고하여야 흙에서 먹을 것을 얻으리라. ……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너는 음식을 먹으리라’(창 3 : 17b~19a).

‘……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시니 그것은 사람이 …… 그 흙을 일구어 농사짓기 위함이었더라’(창 3 : 23).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인간창조의 목적은 농사하기 위함이었고 흙의 노동자로서 일하기 위함이었다. 에리두 창세기에 도 같은 개념이 들어 있다. 인간의 작업 노력은 자연계에서 인간을 영원한 승자로 서게 하였고 자연의 지배자가 되게 하였다. 노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공동으로 협력하여 작업하는 과정에서 말과 지혜의 발달을 가져왔다. 그들은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었다. 이러한 규율은 아무도 깨뜨릴 수 없었다. 여기에 집단 의식이 강화됨으로써 개인은 씨족이나 종족의 개념 속에 용해되어 있었다. 그들 구성원들은 모두가 함께 하는 공동의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이것이 산 생명의 공동체였다.

참조; S.N. Kramer, *Enmerkar and the Lord of Aratta* (philadelphia : University Museum,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52), 136~40행 참조.

2. 도시의 건설과 왕권의 확립

Nippur 본문의 둘째 칼럼은 Nintur 신의 결심을 알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작부분은 파손되어 상실하였다. 그 내용은 아직도 도시들은 세워지지 않았으며, 그 성읍들에는 지도력을 발휘할 자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백성들이 모여들어 도시가 이루어지고 백성의 노동을 감독할 왕권을 하늘에서 내려보냈다는 것이다. 지면 관계상 본문 중에서 일부분만을 옮겨보자.

(1) 본문

(iii : 4 : 5') [.....]-àm [.....]

내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노동을 감독케 하겠다.

(6) 'e'-ne' n[a]-di₅ ga-ba-ni-in-'ga'-gá-en'

내가 그들로 하여금 가축처럼 그를 잘 따르도록 가르치겠다.

(7) 'du'-[!]_{um}-bi igi ga-ba ni-ib-'du₈'-en'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온 후에

(8) [gu]d-gim kalam-ma-ke₄ ús-gi-[na] ha-ba-ab-z[u-zu]

그 자랑스런 왕관과 왕좌가 하늘에서 내려온 후에

(9) [ud^{gis}]-sib]ir-nam-lugal-la an-ta-e₁₁ d[é]-a-ba

그[왕]가 존귀하고 신령한 예배와 임무를 온전히 정식으로 수행하였고

(10) 'men'-mah-gis_{gu}-za-nam-lugal-la-an-ta-e₁₁-a-ba

그리고 이들 정도의 맑은 땅에 다섯 도시를 세우셨다.

(11) garza-me-mah [saġ-ušš]u mi-ni-ib-šu-du₇

그 도시들에 이름을 주고 각 도시에 예배처소를 짓게 했다.

(12) uru-bi-e-ne [sig₄-ib ki-kú-ga im-m]a-an-da-šub(13) mu-bi ba-an-sa₄ [k]ab-du₁₁-g[a b]a-h[al-ha]-la

그들의 이름을 불렀으며, 반-붓셀 바구니들(half-bushel baskets)이 분배되었다.

(14) nisāġ uru-bi-e-ne Eridu^{Ki} maš-sa^d Nu-dim-mud mi-ni-in-sum

이들중 첫째 도시는 Eridu요 그 도시의 지도자 Nudimmud에게 주었다.

.....

(19) uru-bi-e-ne mu-bi ba-an-sa₄-a kab-du₁₁-ga ba-hal-hal-1

이 도시들의 이름이 불리워진 후에 반-붓셀의 바구니들이 분배되었다.

(20') id. im-gùn ba-an-šū₄-an im-ba-al-la aim-ma-ma-an-túm

자주빚을 띤 운하들을 파서 그것들로 진흙과 물을 운반하게 했다.

(21') id-tur-tur-re šu-luh-bi nig-uru₅-uru₅(HAR-HAR)mi-ni-ib-gar-gar

그들의 작은 운하들을 깨끗이 함으로써 풍성한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2) 해설

Eridu는 관개시설의 발달로 농업이 개량되어 증가된 인구에 식량공급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잉여농산물이 산출되었다(iii : 4 : 20'~21'). 이러한 식량의 생산과 축적은 도시와 촌락을 구별짓는 본질적인 요인이 되었다. 백성들에게는 노동의 보상으로 곡물이나 밀가루, 기름같은 식용에 필요한 물품이 주어졌다. 백성들에게는 반-붓셀의 그릇들이 주어졌는데, 이 그릇은 배급용기로서 도량형의 역할을 했으며 노동자들은 자기가 받아야 할 몫을 받고 있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자는 누구나 이 분배 그릇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Eridu의 도시국가 체제가 통화경제 체제가 아니고 공동분배 배급체제가 시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배급에 대한 강조(distribution points)'는 경제의 중심지로서 Eridu 도시생활의 기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 상호간의 교섭(changes in man's interaction with his fellowmen)'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인간의 두 번째 혁명이었다.¹² 그러나 점차 Eridu에서 Lugal이 Ensi를 누르고 득세하여 그에게로 권한이 집중되자 왕의 직무가 세습되었고 특권계급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문자 보급과 함께 지식계급의 출현이 도시화를 결정짓는 또 다른 요인이 되었다.¹³ 한편 소나 나귀가

¹² J. M. Houston, "city" in ZPEB.

¹³ Ibid.

끄는 바퀴 달린 수레가 전쟁의 수단으로 개발되어 백성들은 전쟁의 도구로 전략해갔다. 지배층은 착취로 그들의 소유물을 늘려갔으며 백성은 그들의 자산을 늘려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잉여생산물은 점차 부익부 빈익빈의 상태로 이끌어 갔다. 이리하여 새로이 개인소유의 개념이 발생하여 인간정신에 악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공동체의 집단 의식 속에 파묻혀 있던 ‘나’라는 개념이 점차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마치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창 6:5)와 같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Eridu의 상황은 수메르의 전통과 관습에 위배되고 신들을 거역하는 반역행위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

에리두 창세기의 Ur 본문의 토판 뒷편에는 수메르 도시들의 일람표가 끝나고 있다. 그곳에는 수로의 준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행들이 파손된 채 첫 왕들의 임명으로 이어지고 있다.¹⁴ 그 내용의 일부분을 보면:

(3) 본문

- (4') uru-bi-'ne' [mu-bi ba-an-sa₄-a kab-du₁₁-ga ba-hal-hal-la
이들 성읍들의 이름들이 불리워진 후에 반-붓셀의 바구니가
분배되었다.
- (6') uru-bi-ne Eridu^{Ki} [nisag-ba sibad-zi]
Eridu가 불리워진 후에
- (7') lú-u_x un-ni-[in-pà-dè-eš Á-lu-lim]
가족들 가운데서 한 훌륭한 목자를 발견했다. Alulim을,
- (9') nam-sibad-ki[li-ba-bi-še in-ši-il-e-NE]
그들 모두를 다스리는 목자의 지위에 승진시키고
- (10') uku in-na-an-si-mu(?)-NE
백성을 그에게 맡겼다.

¹⁴ UET, VI. no. 61.

(11') x unkin(?) x[……………]

…………… 의회(?)

(12') nam-'lu' (?) [……………]

…………… 인류(?)

(4) 해설

이러한 수메르 도시국가들의 계보는 기존의 왕조들을 합법화하고 당대의 사회적 현실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였다. 여기서 도시국가들의 본질이 지배계급의 도구라는 것은 분명하다. 지배자들은 의회 등의 국가기구를 설치하여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위와 재산 및 특권을 유지 확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신들은 이러한 현실에 불만을 갖고 대홍수로 그 사회와 국가에 종말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Eridu 도시국가에 대한 신들의 통치는 구약성서에서 이스라엘의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와 유사하다(삼상 8장, 12장).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인간 왕을 구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백성이 계속 고집하자 그들이 왕을 뽑는 일을 도와주셨다.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에 위배되는 현상을 나타내지만 부패한 백성들을 택하시고 만나시고 구원하신다.¹⁵ 절대다수인 대중의 이익을 위한다는 구실 아래, 소수 지배계급의 재산과 지위 및 특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와 방편으로 나타난 것이 도시국가의 왕정이었다. 지배자들은 평민의 반항을 막는 방법으로 폭력을 동원했으며, 이 폭력적인 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 준법을 강요했고, 법의 이름 아래 가혹한 형벌이 가해졌다.

에리두 창세기의 Nineveh 본문은 많은 행들이 파손되어 탈락되어 있으나 ‘수메르 왕조 목록(The Sumerian King List)’에 나타난

¹⁵ G. G. McCown, “City,” in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ed. by George A. Buttrick (Nashville : Abingdon Press, 1965).

독립된 전승으로 복원시킬 수 있다.¹⁶ 지면관계로 일부분의 본문만 살펴보자.

(5) 본문

- (1'-5) [Eridu^{Ki} A-lu-lim mu 36,000 in-ak]
Eridu에서 Alulim이 36,000년을 다스렸고
- (1'-4) [A-lal-gar mu 10,800 in-ak]
Alagar이 10,800년 동안 통치했으며
- (1'-3) [2-am lugal-e-ne bala Eridu^{Ki} mu 64,800 in-ak-me-eš]
2 왕들이 Eridu에서 64,800년 동안 다스렸으며,
- (1'-2) Eridu^{Ki} bala-bi ba-kuúr
Eridu의 통치기간이 바뀌었고
.....
- (2') Dumu-zi sibad [mu 36,000 in-ak]
목자 Dumuzi가 36,000년 동안 다스렸고
.....
- (11') Šuruppak^{Ki} ubara-d [Tu-tu mu 28,800 in-ak]
Shuruppak에서 Ubara-Tutu는 28,800년 동안 다스렸고
- (12') Zi-ud-sud-ra damu [ubara-^dTu-tu mu 64,800 in-ak]
Ziudsudra가 64,800년 동안 다스렸고
.....
- (14') 5 uru-did li 9 lugal-'e'-ne bala-bi mu 352,800 in-ak-me-e-eš
5개의 각 도시들에서 9 왕들이 그들의 통치기간을 352,800년간을
다스렸고
- (15') ^dEn-lil-lè na[m-lu-U_x hal ba-an-da-gig]
Enlil이 인류를 싫어하게 되었으며
- (16') KA_x LI-KA_x LI-dum [dam-ma-ba-ke₄ igi mi-ni-ib-lib]
- (16^b) hu-bur r[i-ig-mi-šu-nu ú-sad-lip-šu]
인간들이 고향치는 소란 때문에 그는 잠을 잘 수 없게 되었다.

¹⁶ Jacobsen, "The Eridu Genesis," *JBL*, 100, pp. 519~20. FN. 10.

(6) 해설

위의 왕조목록은 그들의 통치기간이 주목을 끌게 하는데, 어떤 왕은 10,800년간을 다스린데 비해, 상대적으로 다른 왕들은 64,800년간이라는 장기간을 통치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재미있는 간접적인 설명은 ‘라가쉬 도시의 왕조 목록(Lagash King List)’에 나타난 그들의 통치기간에 쏠리게 한다. 그것에 의하면 이들 고대인들은 이상스럽게도 길게 장수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천천히 자랐는데, 그들은 성장하면서 통치했었다. 라가쉬 왕조목록은 대홍수가 가라앉은 후의 족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¹⁷ 지면관계상 일부분만 보면:

(7) 본문

(14) ud-ba lù-tur dan-dan-na-ka

(15) mu 100 in-ak

이날들에는 아이들이 기저귀(요람 bits)에서 100년간을 보냈으며

(16) nam-bulug-ga-ni-ta mu 100 bi-in-ak

그가 성장하여 어떤 업무가 주어질 때까지 1백년을 보냈으며

(17) Kin-gi₄-a li-bi-ib-gi₄-gi₄

(18) i-tur i-TUR-TUR i-gal ama-a-ni

그는 작고 지혜가 우둔하여 그의 어머니가 그를 돌봐주었으며

(19) Šu s-a-ni tur-re im-ma-an-r[e-r]e

그가 짚으로 만든 명석(straw-bedding)은 소외양간(cowpen)에 놓아두었다.

(8) 해설

이상과 같이 어린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의 느린 성장과 그와 유사한 모습은 구약성서의 족장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원역사의 족장들이 그들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최초의 연령들

¹⁷ Edmond Sollberger, “The Rulers of Lagaš,” *JCS*, 21 (1967), p. 287. obv. i. 14-19.

이 턱없이 높았다는 사실에 당황하게 된다. 예를 들면 므두셀라는 첫 아들 라멕을 낳을 때가 187세였고, 라멕은 노아를 낳을 때가 187세였다. 라가쉬 왕조 목록과 Hesiodos의 ‘백발족(Silver race)’ 사이에는 아주 놀라운 유사성이 있다. 즉 Olympus 산 위에 거주했던, 신들의 반열에 든 첫 ‘황족(Golden race)’의 아이들은 100년간 어린아이였으니, 아주 전적으로 연약한 상태에서 집안에서 자애로운 어머니들에 의해 돌봐지고 있었다.¹⁸ 이러한 진술은 고대 봉건 왕정시대의 귀족과 지배계급의 대민관을 엿보게 한다. 통치자로서 왕들은 대단히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하고 지혜가 넉넉하며 능력이 탁월하다고 선전하고, 반면에 백성이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상대적으로 연소하고 철부지하며 지혜에 있어서 열등하다는 것을 세뇌시키고 홍보함으로써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것이 고대근동의 왕조문학에서 통치자들을 상대적으로 장수한 연장자들로 묘사한 동기이다.

(9) 인류의 두 번째 혁명

구약성서에서 도시의 건축자와 정복자로서 유명한 니므롯(Nimrod)은 ‘세상에서 영걸’ 또는 ‘특이한 사냥꾼’ 혹은 ‘약탈자’로 불리워진다. 첫 도시는 에덴 동산에서 기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안하여 방황하던 폭력살인자 가인에 의하여 세워졌다. 가인은 낫(Nod : ‘방랑자의 땅’이란 뜻) 땅에 정착하여 성읍을 세웠으나 그 도시는 가인 자신의 자취권과 안전을 추구한 것에 대한 상징으로서 의미가 있다. 고대의 인간들이 황야를 일구어 경작지로 바꾸어 가는 초원의 삶에서, 이것을 등지고 저 도성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인간의 삶에는 비극이 찾아왔다. 세속적 안전지대로서 가인의 성읍에는 도덕적 타락과 우

¹⁸ Jacobsen, “The Eridu Genesis,” *JBL*, 100, p. 521.

상승배,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백성들의 노예화, 전쟁과 폭력에 의 호전성, 왕들과 지배자들의 권력 확대가 있어 왔고 그들의 이러한 자만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로서 그 막을 내린다.

‘……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창 6 : 11~13).

이리하여 Eridu는 백성들의 보다 많은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가혹하고 혹독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그들의 도시국가는 백성의 피와 희생 위에 세워졌고 이러한 행위는 창조주를 비웃는 것이었기 때문에 신들은 대홍수로 심판을 내린 것이다.

3. 대홍수 심판과 방주로의 구원

대홍수에 대한 가장 오래된 설화는 Nippur에서 발견된 에리두 창세기의 고바빌로니아 본문이다. 원래 이 서판은 6개의 칼럼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오늘날은 다만 아래에 보여주는 내용이 담긴 3분의 1 정도의 본문만이 보존되어 있다. 그것은 신들이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결정과 더불어 ‘생명의 보존자(Preserver of life)’라는 이름의 큰 방주를 만들어야 했다. 즉 배의 뚜껑(지붕)을 튼튼하게 만들어 덮고 그 속에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신들이 홍수를 내리기로 결정하는 장면은 본문의 셋째 칼럼(iii : 15~25)과 넷째 칼럼(iv : 1~12)에서 보여주고 있다.¹⁹ 본문 셋째 칼럼의 내용을 살펴보자.

¹⁹ Ibid., pp. 521~22.

(1) 본문 <iii>

(iii : 15') ud-bi-'a' ^dNin-t[u-re nig-dim-]dim-a-ni-še₃-še₃

그 날 Nintur은 그녀의 피조물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16') Kug ^dInanna-Ke₄ ukú-bi-še a-nir mu-[si-si-e]

그리고 거룩한 Inanna가 그의 백성에 대한 슬픔으로 가득찼다.

(17') ^dEn-Ki šag₄-ni-te-na-ke₄ ad in-i[n-gi₄]

그러나 Enki는 그의 마음에 한 모락을 세웠다.

(18') An ^dEn-lil ^dEn-ki ^dNin-hur-sag-ga-ke₄

An, Enlil, Enki 및 Ninharsag은

(19') dingir-an-Ki-Ke₄ mu An ^dEn-lil mu-n[e-en-pà-de-eš]

하늘과 땅의 신들은 An과 Enlil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20') ud-ba Zi-ud-sud-ra lugal-àm gudu₄-2[u-AB-kam]

그 때 Ziusudra는 왕이며 정결한 사제였다.

(21') ^dSag-nigin mu-un-dim-dim en[si (EN + ME + LI)-àm]

그는 선견자로서 찬란한 신의 조상(彫像)을 만들었으며

(22') nam-du₉-na inim-si-si-ge ni-te-gá [da-be bi-gub]

그리고 그것 옆에 서서 경배하며 겸손히 그의 소원을 말하고 있었다.

(23') ud-šu-use sag-uš gub-ba-[ni-a]

그는 그곳에 서서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그 어떤 것을 들고 있었으니

(24') ma-mú-nu-me-a è-de inim-ba[l-bal-e-dè]

그것은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즉

(25') mu-an-Ki-bi-ta pà-pà-de [Zi-su-tag-dè]

목구멍이 떨리도록 한 하늘과 땅에 대한 맹세의 선서로 한 것이다.

(2) 해설

신들은 늘어난 도시의 인간들의 춤과 노래로, 광란과 질주로, 소란과 법석으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신들은 인간들을 전부 없애버리기로 결정했다. 특히 신 Enlil은 인구의 팽창과 과잉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숨막힐 듯한 …… 인간의 절규(oppressive …… clamor of mankind)’를 규제하기 위해서 가뭄과 전염병 등의 재앙들을 내린 후에 마침내 최후의 수단으로 홍수를 범람시킨다. 신들은 인간창조를 후회하게 되었다. 이

것은 구약 창세기(창 6:7)와 같은 내용이다. 그리하여 이제는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새 인간이 탄생해야 하고 새 인류가 출현해야 한다. 옛 사람도 의식이 바뀌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옛 인간도 가치관과 생활양식과 사고방식 및 의식구조가 바뀌면 새 인류가 될 수 있다. 그들은 신들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수메르 신화에서 낙원으로 알려진 Dilmun은 원래는 오늘날 페르시아만의 조그만 사막의 섬인 바레인(Bahrein)이었다.

기원전 2, 3천년 경에는 이곳이 대초원지대였으며, 메소포타미아와 인도대륙간의 해상무역의 요충지였다. 그러나 점차 도시화되어가고 땅은 사막화되어 갔다. 옛적부터 정치권력이 토후들에게 집중되어 있던 그곳의 백성들은 봉건영주들의 지배아래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리다 못해 어디론가 떠나야만 했다. 그들은 항구로 나갔다. 그곳에는 망망대해를 거쳐 외국으로 떠나는 사람들을 가득 실은 배가 떠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정든 고향을 버리고 새 땅을 찾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자신들이 태어난 고국은 살 곳이 못되고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새 땅과 새 인류를 갈망했다. 여기서 대홍수의 착상이 떠올랐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한다.

에리두 창세기의 파손된 부분을 복원시키는 것은 조금도 어렵지 않다. 신앙의 사람 Ziusudra²⁰는 인간을 사랑하는 신 Enki의 조언에 따라 방주를 짓고 그것이 자신과 생물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Ziusudra는 성실하게 그의 조언에 순종하였다. 특히 Enki의 경고가 그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흥미롭다. 그것은 점쟁이, 선견자 및 예언자로서의 통치권에서는 매우

²⁰ Ziusudra란 Zi-u₄-sud-ra₂로서 ‘생명·호흡(Zi)-날(U₄)-길다, 멀다(sud-ra₂)’의 합성어로서 ‘장수자’란 뜻이다.

중요한 것으로서, 옛 시대에 왕은 ‘승려-왕(priest-king)’, 즉 백성과 그의 신들 사이의 중재자로서, 신들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에 복종하는 것이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방법이었다. Ziusudra의 믿음의 승리 상태는 그의 명칭 guda-abzu ‘정결한 승려’-만일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을 회복시킨다면 제사장 ensi ‘점쟁이-보는자(선견자)’라는 말에 의하여 보여지고 있다. Ziusudra가 ‘현기증을 일으키는 신(the god of giddiness)’의 조상(statue)을 만든 것 역시 탈혼상태에서 저 세상과 교통할 수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탈혼상태에 들어가는 데에 현기증은 광신자들처럼 신을 접견하는 데에 유용한 수단이 된다. Ziusudra는 부지런히 정화의 신에게 봉사함으로써 그의 의식이 초자연의 세계를 향하여 열려지게 되고 신들의 세계에서 일어난 바를 알아차리게 되었다.²¹

(3) 본문 <iv>

(iv, 1) ‘Ki’-ùr-še dingir-re-e-ne giš-h[um-bi túm-de]

그리하여 신들은 배 젓는 사람의 좌석(thwart)을 kiur에 가져왔다.

(2) Zi-ud-sud-ra da-bé gub-bab-ba giš mu-[un-tuk-tuk]

그리고 그것 옆에 서 있던 Ziusudra로서 그는 듣기 위하여 갔다.

“나의 왼편 벽에 서서 듣거라!”

(3) iz-zi-da á-gub-bu-gu₁₀ gub-ba[giš tuk-ab]

그 벽이 너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4) iz-zi-da inim ga-ra-ab-dug₄ inim-[gu₁₀ hé-dabs-be-en]

그리고 너는 내가 하는 말에 착념하라!

(5) na-di₅-ga-gu₁₀ gizz[al hé-em-ši-ak-Ke₄-en]

너는 나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라!

(6) šu (!?)-me-a a-ma-ru ul-gù Kab-d[u₁₁-ga kalam-ma] ba-ú [r-e]

우리의 손이 홍수로 휩쓸어버리리라!

(7) numun nam-lú-U_x HA-lam-e-‘de’ [nam-bi ba-tar]

반-붓셀 바구니의 나라들을

²¹ Ibid., p. 523.

- (8) di-til-la inim pu-ún-ru[un-ma-ka šu-gi₄-gi₄ nu-gal]
 인류가 멸망하리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 (9) inim-du₁₁-ga An ^dEn-[lil-lá-ka šu-bal nu-zu]
 신들의 의회에 의하여 선고된 판정은 취소될 수 없으니
- (10) nam-lugal-bi bala-bi [ba-bu e-ne šag₄-kuš-ú-de]
 그들의 왕권, 그들의(통치) 기간은 뿌리채 뽑히고 그들 자신은 잘 생각
 해야 한다.
- (11) 'e-ne'-še [.....]
 이제
- (12) 'a'-na-gu₁₀ m[ur-a-e-en-a.....]
 내가 너에게 말하는 바는"

(4) 해설

Nippur에 있는 Ki-ùr에 신들이 모여 성스런 의회를 구성하고 그 의회의 결정에 따라 모든 것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서약한다. 신들은 의회에 참석하려고 각자 자신들이 타고 온 배의 좌석에 앉아 있다. Ziusudra는 Enki가 갈대초막의 벽을 통하여 바람결에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된다. 그런데 Eridu 창세기에서 본문이 전하고자 했던 바의 경고문이 iv : 11~12에서 파손되어 있어 독자들은 조금 당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할 것은 없다.

(5) 파손된 본문

에리두 창세기에서 Ziusudra는 신들의 약속을 깨고 천기(天機)를 누설한 Enki 신의 도움으로, 인류의 씨를 진멸하려는 계획에서 탈출하게 된다. Ziusudra는 아카드인의 영웅 우트나피시뎀(아트라하시스)이나 히브리인의 영웅 노아와 같이 대홍수에서 구원받은 인간이며, 새 인류로 기대되는 이상적인 신앙인의 표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파손된 부분은 같은 내용을 취급하고 있는 Atrahasis 서사시와 Gilgamesh 서사시의 본문들로부터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a. Atrahasis 서사시에서

‘내가 그대에게 말하려는 것은 그대를 잘 보호하리라!
 벽아! 귀를 기우려 내 말을 들으라!
 갈대-오두막아! 나의 모든 말들을 잘 지키라!
 그 집을 파괴하고 배를 지어라!)
 (세상의 재물을 포기하고 영혼을 지켜 살게 하라! } Eridu 창세기에 필요한 부분
 그대가 지어야 하는 그 배는 |
 ,)

(B : 7~14).

그 배는 방주가 되게 하며, 그것의 이름은 ‘생명의 보존자’이다. 네가 만든 방주 안에 들어가 들의 짐승과 하늘의 새들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

(X : 8~12)

b. Gilgamesth 서사시에서

‘그들의 말을 그는 갈대집에게 반복했다.
 갈대집아! 갈대집아! 벽! 벽!
 갈대집아 듣거라! 벽아 생각하라!
 Ubar-Tutu의 아들, Shuruppak 사람아!
 이 집을 헐고 배를 지어라!)
 재산을 버리고 목숨을 구하라! } Eridu 창세기에 필요한 부분
 세상적인 재물을 버리고 생명을 구하라!)

모든 생물의 씨를 그 배 안에 태우라!
 내가 만든 배는 치수가 맞아야 하느니라!
 그 배의 폭과 길이는 같아야 하며 암수와 같이 뚜껑을 덮어라!

(XI : 20~28)

(6) 해설

고대인들에게 있어 금속도구의 제작과 그로 인한 수공업의 발달은 마침내 거대한 방주의 제작을 가능케 하였다. 수로가 첨단 의 교통수단이었던 당시로서 조선업은 기술문명의 꽃이었다. 인간에게 방주로 들어가 모든 생물들을 구하라는 사신은 모든 생명체는 서로 도와주면서 유지해 나가야함을 보여준다. 방주에 의

한 재난에서의 탈출은 해마다 되풀이하여 도래하는 홍수의 재앙과 더불어 참다운 재산에 대한 의식이 유목민의 전통적인 재물관과 결부되어 결정체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 진정한 재산이란 무엇인가? 참다운 재산이란 생명을 살리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재산은 ‘구원의 상징(keep the soul alive)’인 방주(ark)에 들어 갈 수 있어야 하고 생명의 보존자, 보호자, 운반자로서 식물과 동물과 사람처럼 생명이 그 속에 있어야 한다. 그것들은 너무 커도 곤란하고 너무 많아도 어렵다. 그것은 곡식과 채소와 과일과 가축처럼 생명을 먹여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신들의 창조의 균형과 질서가 깨어지면 이 땅에는 재난이 닥친다. 가축과 식구도 소유의 균형과 질서에 맞추어야 한다. 모든 재산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노예는 스스로 움직이지만 그것은 인간의 삶에 긴장과 갈등을 가져오고, 반인간적이기 때문에 재산이 될 수 없다. 양과 소와 나귀와 염소, 및 낙타 등은 인간에게 친근감을 주고 그것들의 웃음소리는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켜주고 평화를 심어주어 행복감을 일으킨다. 그것들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옮겨 다닌다. 이동성과 역동성은 재산의 기본요건이다. 가축은 경작과 추수, 타작과 이동에 인간의 노동력을 덜어주고 그것은 주인과 늘 함께 할 수 있으며, 풀과 물만 있으면 계속하여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불어난다. 이것들은 곧 바로 유목민 자신들의 음식이 되고 의복이 되고 집이 될 수 있었다. 젓과 고기는 먹고, 털은 옷이 되며, 가죽은 장막을 덮는다. 분뇨는 비료와 연료가 되어 낭비가 없다. 그들의 주식인 떡(빵)은 그것 자체가 유목민의 동적 생활을 보여준다. 구울 때에 물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고, 식기도 필요하지 않으며 저장과 운반에 편리한 빵은 동적 생활과 이동문화에 잘 어울렸다. 구약성서에서 히브리인들이 ‘재산’을 지칭하는 낱말 “יָסָד וְיִמְנָן”²²은 “작은 가축” 즉 양, 염소, 양떼, 소떼(flock)를 포함하는 낱말과 동의어로서

유목생활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한 환경에서 나온 것이다.

(7) 본문 < v >

본문의 넷째 칼럼은 셋째 칼럼의 끝 부분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탈문(laucuna)이 있고 곧이어 다섯째 칼럼의 시작으로 확장되고 있다.²³

- (v. 1) im-hul-im-hul im-si-si-ig du-a-bi teš-bi i-sug-ge-eš
모든 사나운 바람들과 모든 폭풍이 한곳으로 모였고
- (2) a-ma-ru-gú Kab-du₁₁-ga ba-an-da-ab-ur-e
그리하여 그들과 더불어 홍수는 반-붓셀의 바구니들의 도성을 휩쓸었다.
- (3) ud 7-àm ge₆ 7-am
7일 낮과 7일 밤을
- (4) a-ma-ru Kalam-ma ba-ur-ra-ta
홍수가 그 나라를 휩쓸어간 후에
- (5) ^{gis} má-gur₄-gur₄ a-gal-la im-hul tuk₄-tuk₄-a-ta
사나운 바람이 큰 물결 위에 그 거대한 배를 끌어올린 후에
- (6) ^dUtu i-im-ma-ra-è an-Ki-a ud-gá-gá
해가 하늘과 땅위에 빛을 비추었다.
- (7) Zi-ud-sud-ra ^{gis} ma-gur₄-gur₄-(ra' buru' mu-un-da-buru)
그리하여 Ziusudra는 큰배의 들창을 열고
- (8) 'sul' ^dUtu ^{gis}-nu_x (ŠIR)-ni šag₄ (!?) ^{gis} ma-gur₄-gur₄-šè
그리하여 당당한 Utu(태양신)가 그의 빛을 큰 배 안으로 보냈다.
- (9) Zi-ud-sud-ra lugal-àm
Ziusudra가 왕으로서
- (10) igi-^dUtu-šè ka-ki-zu-ub ga-gub
땅에 입을 맞추며 Utu 앞에서 걸었다.
- (11) lugal-e gud im-ma-ab-gaz-e udu im-ma-ab-šar-re
그 왕은 황소를 잡고 양과 더불어 아낌없이 바쳤다.

²² 𒌒𒍪은 창 12 : 16, 13 : 5, 26 : 14, 30 : 32, 43 : 46, 𒌒𒍪은 잠 28 : 8 등.

²³ Jacobsen, "The Eridu Genesis," *JBL*, 100, p. 524.

- (12) [gug-gal]’ si-gal […………]X-la-da
 보리떡 ……………과 더불어 초생달 모양의 것들을
- (13) […………]X mu-un-na-‘da’ ‘ba’-‘ba’
 ……………그는 그를 위하여 가루로 만들었다.
- (14) ……………
 ……………
- (15) ‘giš li ú-sikil-kur-ra-kam izi-al) bi-in-si
 그는 산의 정결한 식물 향나무에 불을 붙였다.
- (16) […………] maš …………… gaba’ ‘a’-tab-ba […………] a-X
 그리고 …………… 더불어 지나갔고 그는 가슴을

(8) 해설

여기서 Ziusudra는 어떻게 배를 건조하고 가족과 동물들을 실
 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홍수는 일곱 낮과 일곱 밤을 엄습했다.
 거대한 방주가 거센 풍랑으로 인해 마구 뒤흔들렸다. 그때 태양
 신 Utu가 나타났으며, 신앙의 영웅은 제사를 드린다. 결국 Anu와
 Enlil은 Ziusudra를 소중히 생각하여 신들과 같은 생명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파손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홍수가
 어떻게 신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졌고, Ziusudra가 생존하게 되었는
 지를 알지 못한다. 이 점에 있어서 여섯째 칼럼은 Enki를 이해시
 키는 신들의 토론의 마무리로서 시작되고 있다. 그가 인사할 때
 신들 가운데 An과 Enlil이 서 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자.²⁴

(9) 본문 <vi>

- (vi. 1) Zi-an-na Zi-Ki-a i-pa-dè-en-ze-en za-zu-da hé-en-da-lal
 너는 이제 천기(하늘의 생명의 호흡)와 지기(땅의 생명의 호흡)로
 맹세했으니 그는 진실로 너의 친구로다.
- (2) An ^dEn-lil Zi-an-na Zi-Ki-a i-pà-dè-ze-en za-da-ne-ne im-da-lal
 이것으로 당신들 모두 An과 Enlil은 천기와 지기로 맹세했으니 그대의

²⁴ Ibid., p. 525.

친구로다.

- (3) nig-gilim-ma-ki-ta-e₁₁-dè im-ma-ra-e₁₁-de
그는 땅에서 기어다니는 작은 동물들을 상륙시킬 것이다.
- (4) Zi-ud-sud-rá lugal-ám
Ziusudra는 왕으로써
- (5) igi-Am-^dEn-lil-lá-še ka-ki-zu-ub ba-gub
땅에 입을 맞추려 An과 Enlil앞에서 걸어갔다.
.....
- (7) til dingir-gim mu-un-na-sum-mu <-NE>
신들과 같은 생명을 그에게 허락하였다.
- (8) Zi-da-ri dingir-gim mu-un-ab-^e₁₁-NE
그에게 내려온 신의 하강같이 영원한 생명을
- (9) ud-ba Ziusud-ra lugal-ám
그날에 그들은 Ziusudra를 만들었으니
- (10) mu-nig 'gilim'-ma (!?) numun-'nam'-lu-Ux Urù-ak
작은 동물들의 이름과 인류의 씨를 보존한 왕으로써
- (11) Kur-bala Kur Tilmun-naki-^dUtu-é-šè mu-un-til-eš
Tilmun 동산, 그 산의 동편에서 살았다.
.....

(10) 해설

신들은 Ziusudra에게 자신들과 같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는 하늘과 땅의 생기를 호흡해야 함을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Ziusudra는 ‘태양이 떠오르는 곳’ 즉 Dilmun(Tilmun) 땅의 동편에서 살게 되었다”(11). 이것은 ‘가인이 나가 에덴 동편 뚝땅에 거하였다’(창 4:26)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그는 노아처럼 당대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서 신들과 함께 동행하여 ‘하늘의 비밀’을 전수받았다. 그는 ‘영원한 생명(last breath of Life)’을 얻을 자는 누구나 신들과 같이 천기(天氣) 즉 ‘하늘의 생명의 호흡(Zi-an-na, the life’s breath of heaven)’과 지기(地氣) 즉 ‘땅의 생명의 호흡(zi-ki-a, the life’s breath of earth)’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야 한다는 비밀을 알게 되었다. 인간은 신들의 우주창조의 원리 즉 자연의 리듬에 순응하기로

맹세하고(tamûn, to swear), 모든 생명체들과 더불어 친화하고, 그들의 보존자로서 동맹하면(kitru, to ally), 신들의 생기(ziqu, bueach, breeze)를 부여받아 장수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이론과 신념은 일찍이 동양에도 있었으니, 인도에서는 이것을 오라(aura)라고 불렀다. 기(氣, chi)를 우주에 충만한 에너지이고, 모든 분자와 원자 속에는 이 ‘기’가 존재하며, 따라서 만물생성의 본질로 여겼다. 예를 들면 왕충(王充)은 천지 즉 하늘과 땅의 기가 모여서 합쳐서 만물이 스스로 생겨났다고 했다. 장재(張載)는 필연적으로 기가 모여 만물을 이룬다고 했다. 한편 이정유서(二程遺書), 권 18에는 ‘물음-옛사람들은 오래 산 경우가 많은데, 후세 사람들이 그에게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 때문이 아닌가? 대답-‘기’가 바로 생명이다.”라고 되어 있다. 도가(道家)에서도 ‘기’는 호흡이며 몸 속에 있는 고유한 활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써서 몸 속에 있는 기의운행을 조절하면 오래 살 수 있다고 하였다. 신라 눌지왕 때의 충신 박제상(朴堤上, 삼국유사에는 김제상으로 되어 있다)이 쓴 ‘부도지(符都誌)’에 나타난 우리 한민족의 개벽신화에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나온다. ‘마고성(麻姑城)은 지상에서 가장 높은 도성이라 성안의 모든 사람들은 품성이 순정하여 능히 조화를 알고 지유(地乳)를 마시므로 혈기가 맑았다. 귀에는 오금(烏金)이 있어 천음(天音)을 모두 듣고 길을 갈 때는 능히 뛰고 걷고 할 수 있으므로 내왕이 자자하였다. 그들의 수명은 한이 없다.’²⁵

²⁵ “새 사상 찾아 고대사로 향해하자,” 중앙일보, 1999년 8월 7일. 김지하 시인은 신의 도성이었던 마고성 사람들이 땅의 젖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체인 포도를 따먹으면서부터 혈육이 탁하게 되고 심기가 흑독해져서 하늘의 소리인 율곡(律畝)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11) 새 인류의 출현 : 의식의 제3혁명

에리두 창세기에 타난 새 시대, 새 인류, 새 가치관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부터 있었던 실로 오래된 것이었다. 이것은 마치 구약성서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 그 근본은 상고에 태초니라'(미 5:2)고 한 것을 상기케 한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타의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황금시대는 아득한 과거 즉 '상고의 태초'에 놓여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은 칼 부테가 '신세계(New World)'라는 논문에서 밝힌 구약성서의 유목민적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²⁶ 모세, 요나답, 나단,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예레미야 등은 모두 이 유목민적 이상의 추종자들로서 결국은 원초에로의 복귀와 단순성으로의 복귀를 그 이상으로 삼았었다.

이러한 삶은 Helena Norberg-Hodge의 명저 *Ancient Futures*에서 오늘날 실증되고 있는 바이며,²⁷ Charles A. Reich가 쓴 *The Greening of America*에서 말한 '의식의 제3혁명' 또는 '제3의 각성(Consciousness III)'과 같은 모습이다.²⁸ 이들 자긍심이 대단한 각성인들은 인간이 인간에게 굴종 당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그들은 자기가 만난 사람들의 지위나 칭호나 명성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들은 남을 지배하는 어떤 지위나 권력에 유혹되지 않고 남과의 경쟁이나 소비 등을 위해 애쓰지 않는다. 사회의 통념을 기계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며, 그 사회에 흥미하는 허위의식에 사로잡히지도

²⁶ Karl Budde., 'New Wold'. *Preussische Jahrbücher*, (n.p. 1897). pp. 726~45. vol. 4. Dec. 1895.

²⁷ Helena Norberg-Nodge, *Ancient Futures : Learning from Ladakh* (Rider, 1992).

²⁸ Charles A. Reich, *The Greening of America* (A National General Company., 1971).

않는다. 빈자와 약자에 공정치 못하고 소수의 특권층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도시사회, 인위적이며 환경과 자아를 파괴하는 위선의 덩어리를 거부한다. 그들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에 이르는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의 탐구를 계속한다. 이것이 바로 대홍수의 주인공 구원받은 Ziusudra의 후예들이 추구해야 할 영웅적인 삶이다.

Ⅲ. 결론과 평가

에리두 창세기는 고대의 인류, 특히 옛 Sumer-Akkadian 제종족들의 역사에 대한 기억과 회상을 담고 있다. 에리두 창세기는 그들 종족 공동체의 집단적인 의지의 표상이며, 자기반영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화와 역사는 하나였다. 신화의 서사시는 때를 따라 계속 낭송함으로써 침해되고 있는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고, 백성의 윤리적 삶에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인류문화란 옛 신화 속에 일어났던 사건들의 재연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에리두 창세기는 유구한 인류의 역사적 삶과 종족의 문화 속에서 채득한 진리를 통해 인류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했다.

이러한 에리두 창세기에 대하여 얼마의 학자들은 그릇된 이해를 갖고 있다. 그들은 구약 창세기의 원역사는 에리두 창세기를 개작한 것일 뿐이며 특히 Ur 근방의 Eridu는 수메르 문화의 요람 구실을 하였고 특히 히브리 민족의 인종적 기원도 그곳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창세기의 기자(들)는 에리두 서사시에서 내용을 차용하여 수세기 간에 걸쳐서 자신들의 유일신 사상의 틀에 맞게 개작하여 마침내 오늘날의 구약 창세기의 원역사가

되었다는 왜곡된 이해와 주장을 펴고 있다. 그들 학자들의 관점에 의하면 구약 창세기 1~11장의 기사는 수메르-아카드 문학에서 빌려온 신화적 개념에 히브리적 표현으로 채색한 것으로서 원초적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들에는 고대근동문학에 대한 학문적 이해의 결핍에서 온 편견에 의해서 내용과 신학을 왜곡시킨 면이 있다. 그들은 이 점에 있어서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의 원역사에 대한 세계관과 표현 양식들은 고대근동의 제종족들의 공통유산으로서, 설화의 구조와 사용된 낱말에 유사한 점들이 있으나 그 사상과 내용은 천양지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에리두 창세기와 구약 창세기의 상이성은 마치 짐승과 사람의 비교만큼이나 크다.

에리두 창세기는 새 인류의 탄생을 예고하는 홍수설화가 그 중심이며 절정이다. 다른 부분은 모두 보조역이다.

에리두 창세기의 첫째 부분인 세상과 인간창조 이야기는 그 자체가 독립된 설화가 아니고 창조는 인류역사와 문화의 출발점으로서 신들의 뜻을 펴기 위한 무대로 설정된 것이다. 둘째 부분인 도시의 건설과 왕권의 확립 이야기는 도시 문명과 국가기구의 등장이 비인간화를 촉진하는 폭력과 계층사회로 나아가게 하여 그 쇠망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첫째 설화와 둘째 설화는 역시 그것들 자체로 독립된 것이 아니고, 다만 셋째 부분인 대홍수의 심판과 방주로 구원받은 인간 즉 새 시대 새 인간의 등장을 위한 서론으로 기술된 것이다. 다가올 미래의 새 가치는 유목민적 이상을 지닌 자들의 가치관으로서 그것 자체는 이미 옛적부터 있어 왔던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 흔히 의식의 제3혁명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친 자연, 친 인간, 친 생명과 같은 사상과 신념이다.

우리가 에리두 창세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에 대한 친화적인 삶과 노동의 중요성 그리고 위

기에 선 도시 인구의 팽창과 그로 인한 폭력적이고 소란스런 삶 그리고 국가기구의 비대와 그로 인한 비인간적인 참상을 보여준다. 둘째로 에리두 창세기는 인류문화의 발전단계를 보여주며,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의식과 생활에서의 변혁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셋째로 에리두 창세기는 구약성서 창세기의 원역사의 메시지들을 보다 깊고, 넓게 그리고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준다. 넷째로 에리두 창세기는 새 시대에 새 삶을 살아가야 할 새 인류의 새 가치관(사실은 옛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에리두 창세기의 가치는 본문의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그것이 담고 있는 진리와 오늘날의 인류에게 주는 교훈에서 찾아야 한다. 에리두 창세기에 나타난 신들에 대한 신앙이나 교리들은 무익한 것들이며, 그 신화들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은 별로 의미가 없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오늘날의 세계관 속에 옛 신화를 재해석해야 한다. 에리두 창세기의 이야기에 사용된 언어의 껍질을 벗기고 신화속 주인공들의 실존적 삶의 의미에 집착할 때에 지금, 여기의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주는 의미는 실로 크다 하겠다. 에리두 창세기에서 인류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했던 시절은 인간이 자연을 벗어나 산천을 떠돌면서 수렵에서 목축과 유목생활로, 그리고 채집에서 경작과 이동 농경생활로 진전해 나가던 시대였다. 그러나 물질적 풍요는 정신적 빈곤을 가져오고, 과학의 진보는 파괴를 동반하여, 자연에 대한 무제한적 개발과 도시화는 재난을 불러 와서 인간은 전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지구촌의 위기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고대 유목민들의 가치관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것이 에리두 창세기의 새 인류상이다.